

 보건복지부	<b>보 도 참 고 자 료</b>			
<b>배 포 일</b>	2020. 8. 18. / (총 8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박 은 정 한 연 수	전 화	044-202-1711 044-202-1714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	과 장 담 당 자	김 정 일 유 효 연		02-2113-7660 02-2133-7669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과 장 담 당 자	윤 덕 희 최 문 갑		031-8008-5420 031-8008-5422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팀	팀 장 담 당 자	박 미 라 김 미 란		044-202-1790 044-202-1793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시설팀	팀 장 담 당 자	김 우 기 최 경 호		044-202-1781 044-202-178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 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10동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박능후 1차장은 “수도권 일부 교회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감염이 다른 교회, 다중이용시설, 8·15 집회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을 것과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환자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서울·경기 지역 주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과, 국민 모두가 모임과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1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현장조사를 통해 방문자 수기 명부를 확보하고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주소 불분명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교인들에 대해 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해 주소 및 신원 파악을 진행하고 있다.
- 이와 함께,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긴급방역 실시, 확진 환자 동선조사 및 접촉자 파악과 감염경로 조사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또한, 5개반 56명으로 구성된 합동지원단을 구성하여 코로나19 경증 및 무증상 환자를 수용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 개소를 준비 중이며, 8월 19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 8월 17일 기준 3곳의 자가격리시설에서 409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1개소를 추가로 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 \* (서울시 임시생활시설) 현재 3개소 운영 중 (542명 규모, 8.17. 기준 409명 입소)

- 8월 17일에는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 총 190개소를 현장 점검하고, 3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였다.
- 경기도는 다수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여 즉시 활용 가능한 병상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시설·장비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는 한편,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체계를 활용하여 병상 자원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PC방 158개소, 실내 체육시설 6,688개소 등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용자 간 거리 유지,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한 지도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 2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정부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환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이미 수도권 공동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병상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 8월 17일 20시 기준 수도권 지역의 중환자병상 총 339개 중 입원 가능한 병상은 85개로 병상가동률은 58.1%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병상에 중환자 장비 지원을 통해 중환자 병상을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 수도권외 감염병 전담병원도 총 1,479개 중 660개 병상이 입원 가능(8.17. 기준)하며, 수도권 지역에 전담병원 재지정과 병상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 경증환자가 치료받는 생활치료센터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2개소 (총 440실)를 운영하고 있으며 370실이 이용 가능(8.17. 기준)하다.
  - 서울특별시는 현재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환자의 증가세를 고려하여 8월 19일부터 태릉선수촌에 추가 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 정부는 환자별 중증도나 특성에 맞는 병상 배정과 시·도간 전원 조정으로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8월 16일부터 수도권 공동 병상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수도권 코로나19 현장대응반을 가동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중앙의료원이 함께 환자 발생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 우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응체계를 총괄·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계 간 협력과 조정을 실시하며,
    - 지방자치단체는 환자·병상 정보를 공유하고 중증도에 따른 1차 병상 배정을 실시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은 병상배분 조정과 중증도에 따른 전원 지원을 담당한다.
  - 그동안 코로나19 발생이 안정추세를 보임에 따라 경증환자도 입원병상에 배정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 환자 발생 증가에 따른 중환자용 병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중증도 분류 및 입·퇴원·전원기준을 재확립하고, 신규환자와 기존 입원환자의 중증도를 파악하여 병상을 배정할 예정이다.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필요한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병상과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도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환자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1.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국민 행동 지침  
2.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2.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코로나19 보도준칙」 [한국기자협회] (2020.2.21.)  
7.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8.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4.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5.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1

국민 행동 지침

[국민 행동 지침]

- 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 ②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배달
  - \* 식사 시 감염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 (친구·동료모임) 직접 만나기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  
(PC, 휴대폰 활용)
  - (쇼핑)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 ③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밀) 된 곳 가지 않기
  -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 \* 마스크를 벗게 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는 자제
  - (거리 두기)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 지르기, 큰소리로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하지 않기



## 붙임2

##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감염병 보도준칙

####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 기본 원칙

#####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 별첨

###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